

#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on Adolescent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전 귀 연

교 수 최 보 가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

Full-time Instructor : Jeon, Gwee-Yeon

Professor : Choi, Bo-Ga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on adolescent adjustment. The 443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FACES II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epression Scale, and Self-Esteem Scale.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 MANOVA, and Scheffé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degree of adolescent adjustment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family cohesion. Especially,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families as high in cohesion felt anxiety and depression less, and had high self-esteem in comparison with other levels of cohesion.

## I. 서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집단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 사회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여러 견

해가 있지만(Murdock, 1949; Leve-Strauss, 1956; Kantor & Lehr, 1976; Gough, 1977) 그 중에서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는 입장은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계란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단위들( Miller, 1978) 또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요소들(Bertalanffy, 1968)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체계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각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 즉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 전체는 상호의존적인 각 부분들의 단순한 합과는 다르다. 이것은 전체성 또는 통일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한 체계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각 부분들 사이에 계속 진행되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접근방법은 가족전체에 중요성을 두고, 부분이라든가 가족원 개개인은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체계내에는 많은 하위체계들이 있고 이들은 각각 전체의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Minuchin(1974)은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단위체계로 볼 때 그 체계 내부에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며, 그 다음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과 같은 2인 가족관계(dyadic relationship)가 또 다른 하위체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각각의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되는 것이 가족체계이다.

여기서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 간에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Aldous, 1978) 그 중에 어떤 하위체계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 전체체계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 간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그것은 전체체계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가족체계의 감정적·정서적 차원을 나타내는 개념을 Olson, Russell, & Sprenkle(1983)은 가족응집성이라는 용어로 발전시키고 가족원의 적응(adjustmen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체계이론과 가족발달이론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한 Hill(1971)의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생활주기의 각 단계는 독특한 일련의 과업을 가지므로 가족응집성의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각

단계의 독특한 과업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Haley(1973)는 가족원의 불안, 우울, 정신분열증, 비행과 같은 증상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가족의 생활주기에 혼란 또는 방해가 올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가족들이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필요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의 적응에 가장 바람직한 가족응집성의 수준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가족원의 적응과 부적응을 조사할 때 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가족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자녀를 둔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적응하고 수행해야 할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진다(Duvall, 1977; Adams, 1980).

한편,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응집성과 청소년기자녀의 적응문제를 다룬 것은 많으나(Minuchin, Montalvo, Guernsey, Rossman, & Schumer 1967; Reiss, 1971; Glueck & Glueck, 1950; Rosenblatt & Titus, 1976; Stierlin, 1974)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자녀의 적응에 가장 바람직한 가족응집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족응집성 수준(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가족응집성

가족체계의 연구는 가족체계의 어떤 특정한 차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해진 가족체계이론과 연구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뚜렷한 두가지 차원을 제시했다. 그 중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Hess와 Handel(1967)은 분리(seperatedness)와 연결(connectedness)의 차원을 제시하고 분리와 연결이 가족생활의 역동적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란 분리와 연결 사이의 만족스러운 위치 및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때 자녀는 다른 가족성원들이 그의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한편 가족내의 분리와 연결의 양식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고 한다(Handel, 1965).

Kantor와 Lehr(1976)은 거리조절(distance regulation)을 가족의 주된 기능으로 보고 체계관점을 토대로 가족연구자들이 조사한 문제는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와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의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와 유사하게, Broderick과 Smith(1979)는 Hess와 Handel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가족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경계(boundary)의 정의라고 했다.

한편 Minuchin 등(1967)은 전체로서의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밀착-과잉분리(enmeshed-disengaged)연속체'를 개발하였다. 경계란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 규칙을 뜻한다. 경계가 분산되어 있어 하위체계들 간에 서로 심한 간섭이 있을 경우, 그러한 가족을 밀착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하위체계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을 과잉분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가족체계는 밀착과 과잉분리라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점에 머물기 마련이다.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정에서는 가족성원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우리'라는 집단에 소속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의식을 잃지 않는다. 즉 각 가족성원은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하위체계도 분명하여 운

바른 가족기능이 이루어진다.

Rosenblatt와 Titus(1976)는 '결합-분리(togetherness-apartness)'의 연속체로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고찰했으며 Stierlin(1974)은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가족내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정반대의 힘, 즉 가족성원들을 가족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과 가족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내었다. Stierlin에 따르면 가족내의 결합과 분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서로 상반되는 힘, 즉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힘의 형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강력하게 작용할 경우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체계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상의 두가지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야 한다.

Stierlin의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여 Beavers(1977)는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가족양식이라는 차원으로 고려했다. Beavers에 의하면 구심성 가족양식의 가족성원들은 바깥세계보다 가정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의 생활양식은 구속적이고 또 가정밖에서의 세상경험을 제지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한편 원심성 가족양식의 가족성원들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원칙이 가정 밖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감동에서 벗어나 동료집단에게서 위안을 찾으려고 한다. 원심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정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만큼 성숙하기 전부터 가정밖으로 내쫓는다고 한다.

Foley(1974)는 개인적 정체감을 발달시키려는 욕구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족차원에서 설명했다. 그는 '전자의 욕구는 가족의 경계밖으로 나가려는 원심성 동인으로 이탈(separation)이라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에 포함되는 반면 후자의 욕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체계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구심성 동인으로 접근(clossness)을 추구하게 되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과 관계되며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두개의 욕구가 균형상태에 있다'고 했다. 두개의 욕구가 균형상태에 있는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친밀을 유지하며 자기감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물입될 수 있다. 즉, 자아를 유지하면서 가족체계속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기능에 곤란을 지닌 사람은 종종 자신과 가족간의 경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끼는 상황에 빠지며 자신의 정체감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Olson 등(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가족체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밀착집단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상태에서는 가족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이 너무 높고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 반면, 응집성이 낮은 과잉분리상태에서는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은 낮고 자율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적절한 응집성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Bowen(1965)은 가족성원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가족자아 덩어리'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아가 가족자아로부터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 개인의 자주적, 독립적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가정의 자녀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 쉽다고 했다. Wynne 등(1958)은 상호성(mutuality)이란 가족이 서로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음미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독립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는 가족의 특성을 의사상호성으로 설명했다. 의사상호성에서는 개인의 정체감을 상실하고 고정화된 역할에 자신을 끼워맞추며, 다양한 관점, 흥미, 태도는 가족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금지되므로 가족성원은 각자 자기 고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며, 개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위협으로 지각되므로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Vogel과 Bell(1960)의 속죄양화는 가족체제의 조화를 위해 가족성원 중 한사람, 특히 자녀에게 부모의 갈등을 진가하여 자녀의 정상적 발달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가족의 정서적 일체감이나 자아융합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치료이론가들이 극단적인 응집성을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가족이 정서장애자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를 포함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Olson 등(1979, 1983)이 제시하는 응집성의 각 수준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의 조건까지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체계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적응

대부분의 성격이론가들은 각각 그들 나름대로 적응(adjustment)을 표현하고 있다. Shaffer(1956)는 적응을 개체의 욕구와 사회환경 상황과의 조화라 하였고, Gates(1970)는 적응이란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에 충만해 있고, 사회적으로는 당면하는 문제를 효과적, 능률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으로서 개인적 행복감은 내적 적응이며 사회적 효용성은 외적 적응이라고 하였다. Wolman(1973)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에 상응하는 노력을 포함한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조화적 관계를 적응으로 보았다. Deacon과 Firebaugh(1975) 및 Melson(1980)은 적응이란 체계 혹은 개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며 Morris(1986)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욕구를 환경의 요구와 균형을 맞추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며, 또한 상황의 한계 내에서 대처하려는 성공적인 혹은 비성공적인 시도를 말한다고 했다. 따라서 적응은 기존의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원식, 이상로 그리고 이성진(1979)도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 과정인 동시에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 질서 등에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개인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적응이란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adaptation)이며, 심리학적으로는 개체의 욕구 해소 과정으로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이다. Lazarus(1977)는 적응에는 두가지 종류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체와 환경의 두 개념을 포함하는 적응은 단순히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 뿐 아니라 개체와 환경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적응의 개념에는 환경이란 요소가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환경이란 것은 욕구, 흥미, 가치, 물질 및 정신 등으로 구성된 자아와 상호 관련이 있는 심리적, 행동적 환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욕구와 가치는 가정, 학교, 유흥집단과 같은 인간과 사회환경 속에서 작용하며 개인의 적응은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의 조화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김봉소, 1976).

이런 점에서 적응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 자신을 손상함이 없이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또 적응된 상태란 개인이 항상 변화하는 사회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하에서 자기 자신의 요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이상로·변창진, 1969), Mussen(1961)과 Block(1973)은 불안감이 낮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것을 심리적 적응이 잘된 것이라고 했다. Ullmann과 Keasner(1975)는 적응이란 상대적 개념이

라고 언급하면서, 부적응적 행동이란 저변의 질병의 산물도 아니고 이드, 자아, 초자아간의 충돌에서 나온 기이한 결과도 아니며 단순히 적합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며 부적합한 반응도 적합한 반응과 똑 같은 방식으로 학습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Lazarus(1968)는 부적합한 반응을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적합한 반응을 하도록 학습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반응을 하는 것을 진척 학습하지 못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녀의 불안과 우울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Harford, Wills, & Deabler(1967)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적응은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Hendrick(1975)과 Medinnus 및 Johnson(1976)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적응수준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정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이들 변인을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택하였다.

한편, 변인 중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구들은 하나의 총체적 평가를 강조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조차도 자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느낌을 구별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Harter, 1983, 1990) 자아존중감의 영역, 차원 등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졌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해 자아존중감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자아존중감이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Marsh & Gouverner, 1989).

Harter(1982)는 자아존중감의 분화된 개념으로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아개념의 새로운 모델로서 단일차원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의 통합을 제시하고 특수한 역량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도 고려한 척도를 개발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자아평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움을 주며, 특수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총체적 접근과 다차원적 접근의 통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태도”라고 정의내리고,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총체적 평

가로 보는 전통적 접근과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은 물론 특수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려고 한다.

### 3.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적응

Minuchin 등(1967)은 한명 이상의 비행자녀가 있는 문제가족과 한명의 비행자녀도 없는 가족을 비교 연구했다. 가족응집성의 측면에서 Minuchin은 문제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을 구별하기 위해 "밀착-과잉분리 연속체"를 개발했다. 그 연속체의 한 쪽 끝에는 밀착가족(높은 응집성)으로, 밀접하게 상호연결된 관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가족에게는 자기감, 독립, 자율성을 개발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 연속체의 다른 쪽 끝에는 과잉분리 가족(낮은 응집성)이 있다. 이 가족은 가족소속감이나 단결감이 거의 없다. Minuchin과 그의 동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가족이 연속체의 양극단에 있는 반면 문제가 없는 가족은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Reiss(1971)는 또한 정상가족, 비행가족과 정신분열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Reiss는 다음과 같은 행동의 3가지 유형을 밝혀냈다: 대인간거리-민감형(비행가족), 환경 민감형(정상가족), 일치-민감형(정신분열가족).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대인간거리-민감형 가족은 Minuchin의 과잉분리가족(낮은 응집성)과 유사하다. 그들은 가족소속감에 대한 지지나 의미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Reiss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들은 비행자녀를 가지기가 쉽다. Reiss의 일치-민감형 가족은 Minuchin의 밀착가족과 유사하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Glueck부부의 연구(1950)도 역시 가족 응집성의 차원과 관계가 있다. 현장조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범주는 3가지였다. 1) 좋음(good)-상호간의 협동심, 관심, 애정으로 증명되는 강한 공동체 의식, 2) 보통(fair) 빛빛의 구성원은 유대가 강하지만 몇몇 구성원은 가족으로

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려 한다. 3) 나쁨(poor)-통합되지 못함: 구성원은 자기자신의 흥미와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공동의 흥미는 미약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비행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을 비교해 보면, 비행자녀가 없는 가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응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Glueck부부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가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Jensen(1972)은 중·고등학생 17,500명을 대상으로 질분지 조사를 하여 아버지의 감독과 응집성 정도가 학생의 비행횟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감독 및 응집성과 학생의 비행횟수간에 역상관관계가 나타나 아버지의 감독과 응집성이 낮을수록 학생의 비행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를 행한 Hetherington, Stowic 및 Ridberg(1971)는 낮은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Rosenblatt와 Titus(1976)는 '결합 분리'의 연속체로 가족응집성의 측면을 고찰한 결과 최선의 해결책은 가족구성원이 분리와 결합 사이의 균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권력투쟁과 강한 감정은 결합과 분리를 위협하려는 가족구성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청소년은 부모가 결합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통제로 보는 반면, 부모는 청소년자녀가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위협으로 본다는 것에서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더 많은 독립과 자율을 누리려고 할 때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가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상황은 청소년의 독립을 단념시키고 방해하려는 가족(극도의 결합)이나, 가족구성원에게 거의 지지를 하지 않는 가족(극도의 분리)과는 대조적이다.

Olson 등(1983)은 임상 경험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가족은 흔히 응집성 차원의 극단적인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응집성 수준이 극히 높을 때 그 가족은 지나치게 상호동일시하여 가족내에서의 충성과 혐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개별화가 방해받기 쉬운 반면 응집성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지나친 자율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과의 접촉 및 개입(commitment)이 제한되

고 자기 임의로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응집성이 중간 수준일 경우에, 각 개인은 다른 가족원들과 적절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관련을 가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Olson 등, 1979, 1983).

한편 국내연구로, 박금희(1986)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응집성요인과 청소년의 불안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응집성은 상태불안(-.61) 및 특성불안(-.63)과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며, 민하영(1992)은 소년원에 수감중인 청소년범죄자와 남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비행정도와 가족응집성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족응집성이 낮은 집단이 대물비행을 제외한 전 비행영역에서 높은 비행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활용되었다. 가족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객관적인 정보보다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가족경험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가족경험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고 제안했으며(Giuli & Hudson, 1977; Ausbell 등) McDonald(1977)는 청소년의 지각이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각이 객관적인 측정과 꽤 일치하므로 청소년의 지각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 후 난수표를 사용하여 3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를 대상으로 각 구별, 중고등학교별로 남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씩 12개교를 무선표집했다. 각학교의 2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한학급씩 표집을

하여 선정된 4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가족응집성척도와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 1) 가족응집성척도

가족응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FACESⅢ)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은 Circumplex Model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국내연구를 위한 FACESⅢ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는 전 귀연과 최보가(1993)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FACESⅢ 중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한 10개의 문항으로 평가되는 가족응집성 요인은 가족적응성 요인과 직교하며( $r=.03$ ) 가족적응성과는 다른 가족기능영역을 측정하고 있다(Olson 등,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만을 취하여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FACESⅢ은 원래 Olson의 Circumplex Model에서 제시된 양방향성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FACESⅢ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Circumplex Model의 곡선적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Beavers & Voeller, 1983; Green 등, 1985; Fristad, 1989; Perosa & Perosa, 1990). 즉 FACESⅢ의 Likert 5점등 척도의 문항들은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족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아 역기능적인, 밀착가족을 FACESⅢ로는

구별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1992)은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을 새로이 제안하고 응집성 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집단, 분리 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르면 과거에 밀착된 집단으로 분류된 집단은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분류되게 되므로 연구 결과의 비교에 주의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FACESⅢ에 의한 분류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2) 청소년의 적응성척도

### (1) 불안척도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나누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에 각각 2개의 요인씩 추출되었다. 상태불안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40.3%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불안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0.7%를 설명하며 '현상태의 안정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특성불안 척도의 첫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1.9%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안정감'을,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12.1%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불안감'을 나타낸다. 역시 첫번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역으로 계산된다.

상태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89과 .84이었다.

### (2) 우울척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 &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2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변량의 36.2%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무력감'으로 명명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변량의 6.3%를 설명하며 '외로움'으로 명명되었으며 세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변량의 5.8%를 설명하며 '부가치감'으로 명명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82, .78, .81이었다.

### (3)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보가와 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물론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간편하게 되어있다.

자아존중감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최보가와 진귀연(1993)이 제안한대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0.6%이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9 ~ .90이었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Likert 5점등 척도로 구성되었다.

##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00명을 무선표집하여 1993년 5월3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89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 척도 분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자녀 및 시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Olson 등(1992)이 제시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적응

Olson 등(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응집성 점

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된 집단과 분리집단의 수는 많은 편이고, 과잉분리 집단과 매우 연결된 집단의 수는 적은 편이다.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 수준별로 주효과(F = 13.58,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응집성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차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 변인 중 불안과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간에 P<.01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잉분리집단, 분리집단, 연결된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 순으로 불안이 낮았으며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우울과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과잉분리집단과 분리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P<.01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리집단, 연결된

<표 1> 가족응집성 수준별 점수범위 및 빈도

가족응집성수준	과잉분리	분리	연결된	매우연결된	전체(443명)
점수범위	10 - 25	26 - 32	33 - 39	40 - 50	평균 : 32.56
빈도(%)	76(17.2)	135(30.5)	153(34.5)	79(17.8)	표준편차 : 7.01

<표 2>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응집성	.60	13.58	18.00	1228.02	.00

〈표 3〉 가족응집성 수준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종속 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16726.25	145352.05	5575.42	331.10	16.84	.00
우울	9186.49	110686.00	3062.16	252.13	12.15	.00
총체적 자아존중감	477.17	8248.68	159.06	18.79	8.47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1414.06	17738.22	471.35	40.41	11.67	.00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8733.94	15617.8	2911.31	35.58	81.83	.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9.34	12522.53	29.78	28.53	1.04	.37

(df 3, 439)

〈표 4〉 가족응집성 수준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 변인	집단(평균)	분리된	연결된	매우 연결된
불안	과잉분리 (104.40)	3.11**	5.55**	5.72**
	분리 (96.54)		3.02**	4.44**
	연결된 (90.57)			2.00*
	매우 연결된 (85.39)			-
우울	과잉분리 (72.63)	1.61	3.63**	4.86**
	분리 (69.00)		2.40*	4.49**
	연결된 (64.88)			2.88**
	매우 연결된 (58.47)			-
총체적 자아존중감	과잉분리 (18.28)	.11	2.41*	3.71**
	분리 (18.34)		2.83**	4.38**
	연결된 (19.73)			2.19*
	매우 연결된 (21.06)			-
사회적 자아존중감	과잉분리 (27.41)	.87	1.39	3.75**
	분리 (26.62)		2.98**	5.82**
	연결된 (28.67)			3.54**
	매우 연결된 (31.77)			-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과잉분리 (21.75)	3.97**	9.39**	12.83**
	분리 (25.33)		6.64**	12.09**
	연결된 (29.69)			7.32**
	매우 연결된 (35.43)			-

\* P&lt;.05 \*\* P&lt;.01

집단, 매우 연결된 집단순으로 우울이 낮았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과잉분리 집단과 분리 집단, 과잉분리 집단과 연결된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우 연결된 집단이 과잉분리 집단, 분리 집단, 연결된 집단에 비해 높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분

리집단에 비해서는 연결된 집단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집성이 높은 집단인, 매우 연결된 집단의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이 가장 낮고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된 집단의 청소년들 역시 매우 연결된 집단의 청소년보다는 불안과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 분리 및 과잉분리 집단보다는 불안과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대체로 응집성이 높은, 연결된 집단과 매우 연결된 집단의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응집성이 낮은 과잉분리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가장 높은 불안과 우울을 보이고 대체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 적응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응집성이 높은, 매우 연결된 가족이 가장 문제가 적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호간의 협동심, 관심, 애정으로 나타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 가족들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문제가 적으며(Gluck & Glueck, 1950)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고(신귀연·최보가, 1993), 가족내 문제가 적으며(Olson 등, 1983), 가족의 낮은 응집성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Hetherington, Stowwie, & Ridberg, 1971; 민하영, 1992)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응집성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애정정도가 청소년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나철·이길홍·민병근, 1984),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대화시간의 부족이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기백서·민병근, 1981)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대립적이고 제각기 분리된 경향이 있는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채영래·최수호, 1982)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응집성이 매우 높은 가족이 상습적인 비행소녀가 더 많으며(Druckman, 1979), 응집성이 중간 수준정도인 분리집단 및 연결된 집단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이며 청소년문제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Reiss, 1971; Stierlin, 1974; Barnes & Olson, 1985)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가족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상가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임상가족을 포함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응집성을 나누는 분류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구대상 집단들이 나타낸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구분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이 달리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상분(1992)이 지적했듯이 기능적인 가족에 대한 한국문화의 기대나 정의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미국문화권에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Olson, 1985) 반면 우리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분위기의 조화와 화목을 중요시해 왔고(김재은, 1974),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협조와 애정적 접촉이 강조되어 왔다(윤진, 1985). 비록 서구의 가치관이 도입됨으로 해서 한국가족구조와 기능이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가정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므로 미국문화권내에서는 중간 수준의 응집성을 가진 분리 및 연결집단이 가족기능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응집성이 높은, 매우 연결된 집단이 더 긍정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집성이 높은 가족의 특징은 정서적 유대가 높고 가족외부의 일이나 활동보다 가족내부의 일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도 허용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레크리에이션에 관심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활동도 일부 허용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특징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족을 응집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장 높

은 적응수준을 보고했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이러한 가족을 너무 가깝게 서로서에게 밀착되어 있다고 판단할지라도 청소년기자녀들은 가족구성원의 그러한 상태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FACESⅢ 중의 가족응집성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인변량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족응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응집성이 대체로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높고, 협조와 지지를 구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가족의 단결 및 단란을 중요시하는, 응집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 및 자신의 가정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청소년이 건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가 높은 응집성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임상가족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로 보아,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에 대하여 가족내부인

중 청소년의 평가만을 활용하였으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가족체계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특정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입상의나 가족연구가와 같은 외부관찰자에 의한 관찰이 병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청소년기자녀를 연구대상으로하여 가족응집성이 청소년기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가족응집성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적응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한명이 청소년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바람직한 가족응집성의 수준이 다르고 가족원의 생활만족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종단적인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응집성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설정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기백서·민병근,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20, 1981, 208-216.
- 2) 김봉소, 청년기의 자기개념, 사회적 태도 및 적응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76.
- 3)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8.
- 4)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 5) 나 전·이길홍·민병근, 학생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

- 1984, 561-582.
- 6)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992, 112-124.
  - 7) 박금희.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8) 선일선. 생활사건변화와 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 9) 윤진. 노부모와 중년자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한국가족관계에서의 갈등*, 1985.
  - 10) 이상로·변창진. 적응진단검사, *중앙직업적성연구소*, 1969.
  - 11) 전귀연·최보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157-173.
  - 12) 정원식·이상로·이성진.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79.
  - 13) 채영래·최수호. 청소년비행과 가족관계, *신경정신의학회지*, 21, 1982, 86-91.
  - 14) 최보가·전귀연.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1993, 41-54.
  - 15) 한상분.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아동학회지*, 14(2), 1992, 145-160.
  - 16) Adams, B.N.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Rand McNally, 1980.
  - 17) Aldous, J. *Family Careers: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18) Ausbel, D.P., Balthazar, F.E., Rosenthal, I., Blackman, L.S., Schoont, S.H., & Welkowitz, J. Perceived parent attitudes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go structure. *Child Development*, 25 (Sept), 1954, 173-184.
  - 19) Barnes, H. & Olson, D.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1985, 438-447.
  - 20) Beavers, W.R. *Psychotherapy and Growth: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Brunner/Mazel, 1977.
  - 21) Bertalanffy, L. von. *General Systems Theory: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Brazillier, 1968.
  - 22) Bowen, M.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a in the Hospital and in Private Practice*. In I. Boszomenyi-Nagy & J.L. Framo(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1965.
  - 23) Broderick, C. & Smith, J.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pp.112-129). In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s About the Family*, Vol. II, New York: Free Press, 1979.
  - 24) Deacon, R.E. & Firebaugh, F.M.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 25) Druckman, J.A. A family 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Aug), 1979, 627-636.
  - 26) Duvall, E.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77.
  - 27)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986, 1024-1027.
  - 28) Foley, V.D.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Grune & Straton, 1974.
  - 29) Gates, A. I. *Educational Psychology*(3rd Ed.), MacMillan, 1970.
  - 30) Giuli, C.A. & Hudson, W.W. Assessing parent-child relationship disorders in clinical practice: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Social*

- Science Research, 1(Fall), 1977, 77-92.
- 31) Glueck, S. & Glueck, E.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32) Gough, K. *Family Origins and Development*. In A.S. Skolnick & J.H.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 33) Haley, J. *Uncommon Therapy : The Psychiatric Techniques of H. Erickson*, M.D. New York : Norton, 1973.
- 34) Handel, G. Psychological study of whole families, *Psychological Bulletin*, 63, 1965, 19-41.
- 35) Harford, T.C., Wills, C.H., & Deabler, H.L. (1967). Personality correlates masculinity-femininity, *Psychological Reports*, 21, 881-884.
- 36)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982, 87-97.
- 37) Harter, S.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La Greca (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292-325), Boston : Allyn and Bacon, 1990.
- 38) Hendrick, J. *The Whole Child : New Trend in Early Education*, Saint Louis : The C. V. Mobsy Co., 1975.
- 39) Hess, R.D. & Handel, G. The Family as Psychosocial Organization. In G. Handel(Ed.), *The Psychosocial Interior of the Family*,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67.
- 40) Hetherington, E.M., Stowwie, R.J., & Ridberg, E. H.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971, 160-176.
- 41) Hill, R. Modern systems theory and the family : A confront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10 (Oct), 1971, 7-26.
- 42) Jensen, G.F. Parents, peer, & delinquent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2, 562-575.
- 43) Kantor, D. & Lehr, W.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 Jossey-Bass, 1976.
- 44)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1985, 995-998.
- 45) Lazarus, A.A. Learning theory and the treatment of depres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6, 1968.
- 46) Lazarus, R.S.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 1977.
- 47) Levi Strauss, C. The Family. In H.L. Shapuri (Ed.), *Man and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48) Marsh, H.W., & Gouvernet, P.J.,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s and perceptions of control : construct validation of response by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989, 57-69.
- 49) McDonald, G.W. Parental identification by the adolescent : A social powe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Nov), 1977, 705-719.
- 50) Medinnus, G.R., & Johnson, R.C.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2n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6.
- 51) Melson, G.F. *Family and Environment-An Ecosystem Perspective*,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Co., 1980.
- 52) Miller, J.G. *Living Systems*, New York : McGraw-Hill, 1978.
- 53) Minuchin, S., Montalvo, B., Guernsey, B.G., Rossman, B.L., & Schumer, F. *Families of the Slums*, New York : Basic Books, 1967.
- 54)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55) Minuchin, S., Rossman, B. L., & Baker, L. *Psychosomatic Famili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56) Morris, C.G. *Psychology : An Introduction*(5th ed.). N.J. : Prentice Hall, 1986.
- 57) Murdock, G.P. *Social Structure*. New York : Macmillan Co., 1949.

- 58) Olson, D.H. Commentary :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 1985, 203-207.
- 59)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1992.
- 60) Olson, D.H., Portner, J., & Lavee, Y. *FACES III*.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61)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1983, 3-28.
- 62) Olson, D.H., Sprenkle, D., & Russell, C.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1979, 3-28.
- 63) Reiss, D. A theory for relating family interaction to individual thinking. *Family Process*, 10 (March), 1971, 1-27.
- 64) Rosenblatt, P.C. & Titus, S.L. Together and apartness in the family. *Humanities*, 12, 1976, 367-379.
- 65) Shaffer, H.F.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56.
- 66)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 67) Stierlin, H.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 Quadrangle, 1974.
- 68) Ullmann, L.P. & Keasner, L. *A Psychological Approach to Abnorm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75.
- 69) Vogel, E.F. & Bell, N.W.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as a Family Scapegoat. In Bell and Vogel(Eds.), *The Family* Glencoe, Illinois : Free Press, 1960.
- 70) Willer, P. *Depression : A Psychobiological Synthesis*. New York : John Willey & Sons, 1985.
- 71) Wolman, B.B. *Dictionary of Behavioral Sci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1973.
- 72) Youniss, J. & Smollar, J.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